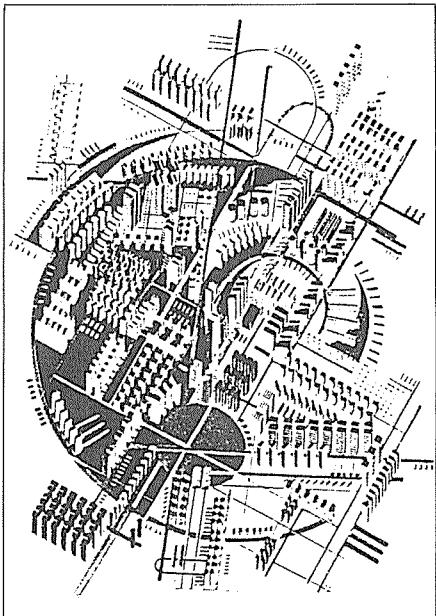


# 도시의 색채환경을 위하여

For the Urban Color Surrounding

劉永鳳／건축사사무소 창일사

by You, Young-Bong



都市는 기본적으로 街路와 建築物로 구성되고 建築物이 都市를 이루는 색채를 형성한다. 시각적 색채는 表面色, 面色, 空間色, 照明色, 光源色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색채를 지니고 있고 모양과 크기가 다르듯이 색채가 다르다. 서로 다른 색채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따라 삶을 기쁨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요소가 되고 더불어 멋있게 사는 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들이 객관적으로 조화있는 환경색채를 갖고 있을 때와 그 반대일 경우에 따라 生理·物理·心理적으로 의식에重要な 영향을 주게 되는데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색은 안정을 잃어 권태롭고 사회불안 요소를 제공한다. 안정된 색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生活에 활력을 주며 활동성과 능률과 希望을 준다. 이와 같이 색채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機能을 지배하는 視覺藝術로 都市색채 환경을 위한 선택은 꼭 중요하다.

건축물에 사용하는 색채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温色계통을 많이 사용하며 건축자재 자체의 색채와 종합해 이질감없는 배색으로 처리하며 아래사항을 주목하여야 한다.

- 질서있는 색채
- 두색이상의 배색이 시각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 같은계통의 배색으로 친근감을 주며 조화를 느끼게하고
- 배색된 색채가 공통성을 가지며
- 반대되는 색채의 배색이 서로 반대되면서 이질감 없이 조화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상의 여러기본은 각기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유사색상의 조화는 무난하나 변화가 없고, 명도차, 채도차를 두어 대비효과를 기한다. 반대색상 조화에 있어서는 순색끼리의 배색은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므로 명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낮추어 조화를 도모한다. 무채색은 모든색과 거의 조화되므로 유채색과 적당히 배색하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원색계통은 가능한한 사용을 삼가야 한다.

옛 선조는 건축물 색채에 자제의 순수한 自然色을 중요시하고 우리 환경과 어울림에 주안점을 둬 전체적 造型美와 自然美의 調和에 힘을 쏟았고 건축물 색채에 대하여 사찰 및 궁궐을 제외하면 깊은 고려가 없지 않은가 여겨지나 일상 생활용품, 장식품, 의류 等은 꼭 다양하고 많은 색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전통색 추구에 관심을 가져 그의 발전에 노력해야겠다.

現代建築의 색채선택은 건축물의 質과 規模에 따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여러모습이 추구되나 커튼 월(Curtain Wall)로 색유리 반사유리 等으로 처리해 건물자체가 움직이는 스크린과 같은 아름다움을 일으켜 도시환경을 動的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겠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부자재인材를 石材 벽돌, 타일, 페인트 等을 주로 사용해 건축물 색감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넓은 안목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들중 타일과 페인트색채 선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밝은서울 구성과 건축물 색채向上을 위한 색채심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코져 함을 알고 있으나 이는 꼭힘든 문제이므로 전문가(시각디자이너 및 건축사)에 맡겨 종합예술로 발전하도록 하여 시민의 평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APT 와 市街의 기존건물은 입주자와 건물주의 일방적 색채선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색채변경(도장, 도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을지…….

여의도, 한강변, 잠실등 도처의 대단위 APT 단지의 색상은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여 무난하게 처리해 APT 숲을 이뤄 활기차고 젊은 색채환경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좀더 밝고 대담·다양한 처리로 다수의 조화가 통일된 아름다움으로 밝은 주거환경이 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멋있는 生活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많은 색을 사용하는 우리의 색채문화를 건축에 과감히 접목 발전시키는 역할이 우리 건축인의 지혜임을 명심하고 건축물의 색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겠다.

◆  
유영봉

32년 전남생, 전남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축사사무소 창일사 대표.